

## 경주 토함정사 자연이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같이 비어두고 싶었던 집 Toham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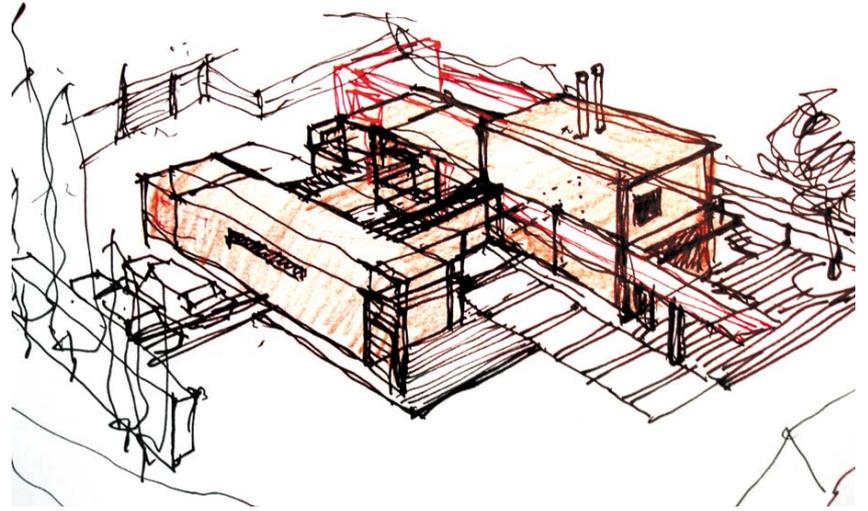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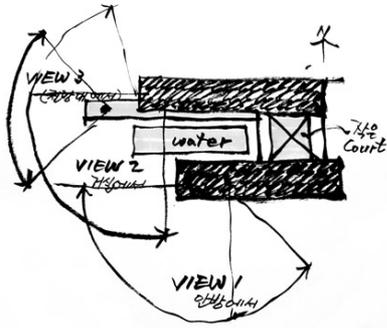
‘토함정사’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토함산의 땅과 공기와 자연을 느끼게 되었다. 불국사 석굴암 등 너무나도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토함산의 한 자락에 필자가 설계한 주택의 공간이 지리할 줄은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냥 위대한 토함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땅의 공기와 공간체험을 할 권리라 정말 황송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어느 건축주로부터 경주 불국사 아래에 땅을 300평 가지고 주택을 짓겠다는 부름이 있었다. 가슴에 엄청난 무게를 느끼며, 이 땅을 방문하였다. 뒤쪽으로는 그 유명한 토함산을 배경으로 하여 앞쪽으로는 경주 남산이 막힘 하나 없이 180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신이 만든 땅에 신이 준 부름이었다. 이럴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토함산의 부름에 겸손한 답장을 쓴다는 느낌으로 이

프로젝트는 계획되었다.

‘토함정사’는 전원주택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새로 들어설 주거와 주변자연에 관한 관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전원주택단지 단지 전체의 조망은 무척 좋아보여도 각각의 개별 주택에서의 조망은 앞집에 막히고 가려져서 나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 주택은 화려한(?) 자연이 남서쪽으로 180도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너무나 화려한 조망 때문에 이 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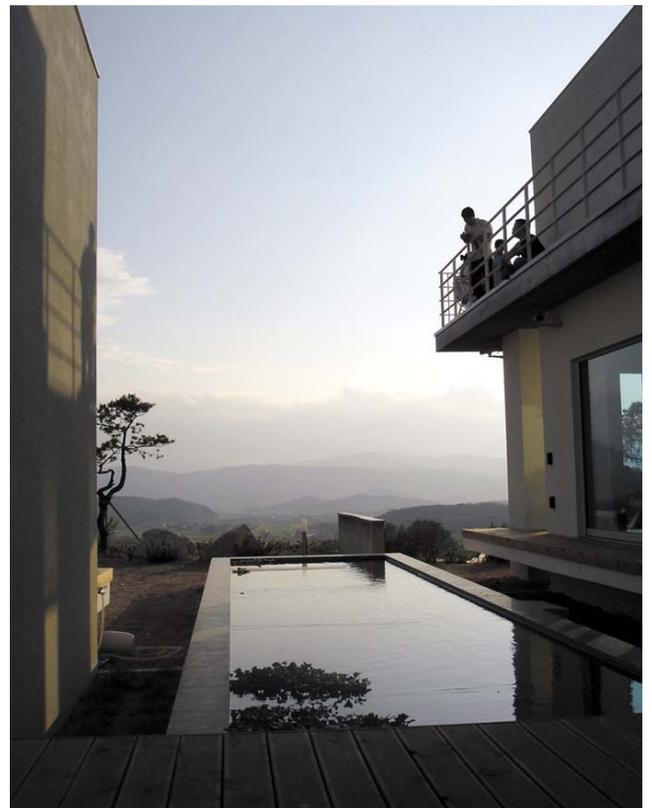


자연의 황포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0도로 열린 조망을 가진 경사지에 더더구나 높은 축대로 인하여 경주 남산을 향해 사사찰 시각적으로 아무 것도 가릴 것이 없다. 너무나 화려한 이자연에 대한 건축적 생각은 자연을 어떻게 한정짓느냐는 것이었다. 조망을 어떻게 끊어내고, 가두고, 끌어들이고, 어떤 초점에는 적극적으로 열면서 자연을 각각 다른 의미로 주거의 내부까지 관입시키는가가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커다란 조

망을 그대로 하나로 두는 것보다는 그 조망이 어떤 주거의 장치들을 통하여 몇 개의 주거 내부의 풍경으로 만들어내고 싶었다. 한정 없이 열린 자연에 대하여 제한된 '풍경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면...; 하나의 자연에 대한 커다란 열림을 몇

개의 풍경으로 한정지어서 주거 내부에 침투되는 풍경으로서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를 위하여 몇 개의 장치들을 계획하였다. 서남향의 조망을 같은 비중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크게 안방이 있는 안채와 거실과 식당이 있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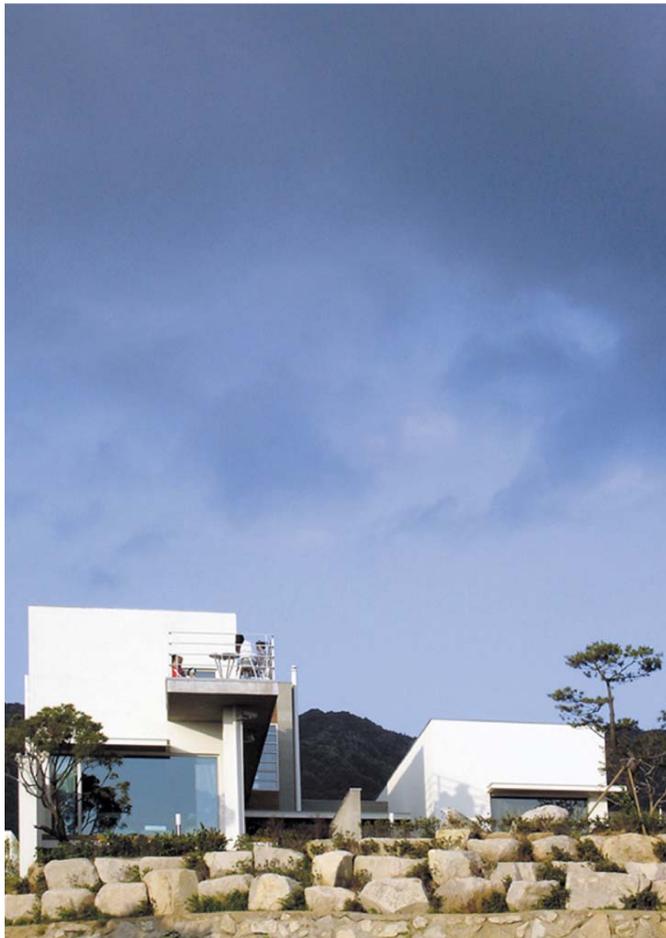
실재의 두 개의 채로 채 나눔을 하였다. 이 두 개의 거실과 안방에는 각각 서남향에 온통 열린 큰 창을 두어 꼭 같이 남산의 원경을 풍경으로 들어 오게 하였으며, 각각의 채들은 툇마루를 갖고 자연에 면하여 앉아있다. 그리고 두 개의 채를 잇는 사이에 4미터각의 작은 갇힌 중정을 만든다. 너무 펼쳐진 자연에 극히 휴먼스케일로 한정되어, 피부의 느낌에 닿는 공간을 마련하여 밤이면 석등에 불을 밝혀 이 집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두고 싶었다. 이 중정은 야생화와 자갈과 하늘로만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긴 툇마루를 두어 무한히 뻗어나가 있는 자연에 대한 조망을 끝없이 따라가게 하였다. 그 앞에 긴 사각형의 기하학적 연못을 두고 그 연못에 비친 하늘을 툇마루에서 관조하게 하여 하늘마저 이 집의 자연의 한 요소가 되게 땅으로 끌어내렸다. 이 연못에 조용히 연꽃

을 띄워본다. 반대로 이 집의 최고의 장소는 역시 전망대라고 이름붙인 거실위의 테라스이다. 거실상부의 캐노피를 남산을 향하여 길게 뻗어나서 전망대라고 일컫는 장소를 만들어 내었다. 거실 앞이 아닌 거실 위의 이 테라스에 서면 정말 전망이 아무 막힘이 없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늘을 포함하여 360도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장소로 자연을 향한 이 집의 초점으로 만든 곳이다. 자연의 열림을 한정지우면서도 극대화시킨 장소, 여기에서 집주인 부부는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집은 다목적실로 쓰는 지하층을 제외하면 단지 단층집으로 계획되었다. 두 개의 채는 각각 높이를 달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거실채의 옥상 벽을 높게 하여 루프가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루프가든은 자연과 폐쇄적이면서 하늘하고만 접하고 있다. 흘러가는 구름만 보이게 하

고 싶었다. 열린 자연에 대해 또 하나 폐쇄적인 자연으로 만들어 대비시켜보고 싶었던 장소이다.

이 집을 통하여 몇 개의 자연으로 한정시키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장소들을 찾아보았고, 이집 가족의 생활과 주위환경과의 관계를 시간적 추이를 갖고 상상해보면서 주거와 자연의 전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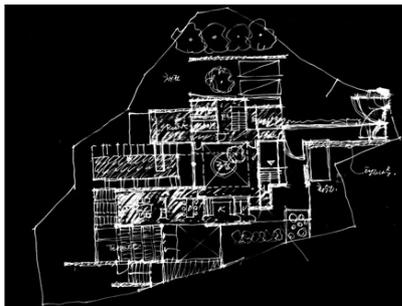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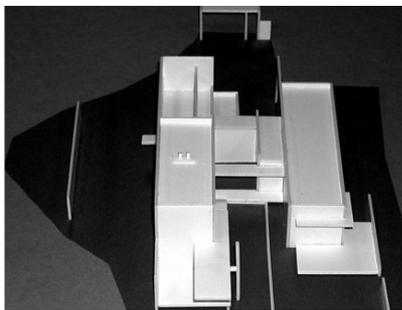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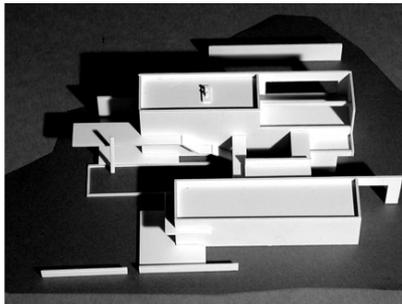
'토함정사'의 인상은 단적으로 말하면 '보편적이면서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가공도, 다른 문화권과 혼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이미지도 없다. 외형으로 나타나는 볼륨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입방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형태적으로 특이한 것이 없다. 단지 두 개의 채 나눔을 통하여 텅 빈 공간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었다. 요소들을 보아도 크게 열린 창, 몇 개의 마당, 툇마루, 담 등의 습관적인 요소가 전부 그대로 남아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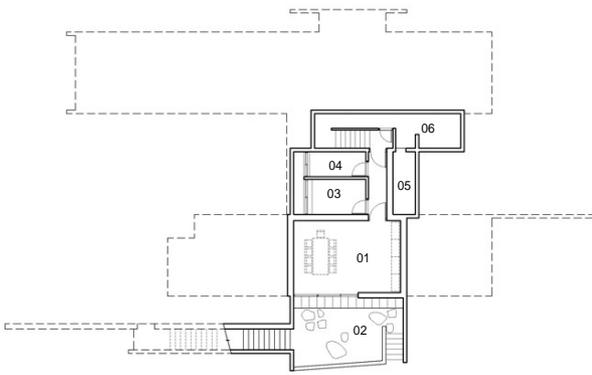


우리건축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소재의 선택방법, 사용방법도 정직하여서 바닥에는 마루, 벽과 천장에는 백색 벽지라고 하는 당연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외벽은 하얀 드라이비트의 흰 벽이며, 마당은 흙 마당일뿐이다. 거기에는 건축의 통념을 흔드는 어떤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도, 아크로바틱한 구조도 없으며, 벽이나 지붕이나 창이라고 하는 기본개념을 무의미화 시키려는 어떤 외피의 표현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인가 조금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 앞에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같이 비어두고 싶은 몇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외부적 공간이 서로 관입되어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일 뿐이다. 자연이 와 달고, 자연이 머물고, 자연을 향하여 끝없이 뻗어나가고, 자연이 가두어지는 이 비워둔 공간들이 소유주가 되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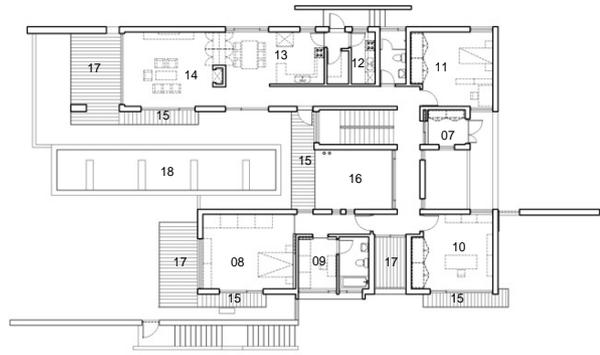
집 가족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담겨지면서 이 집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토함산의 부름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겸허한 답장이다.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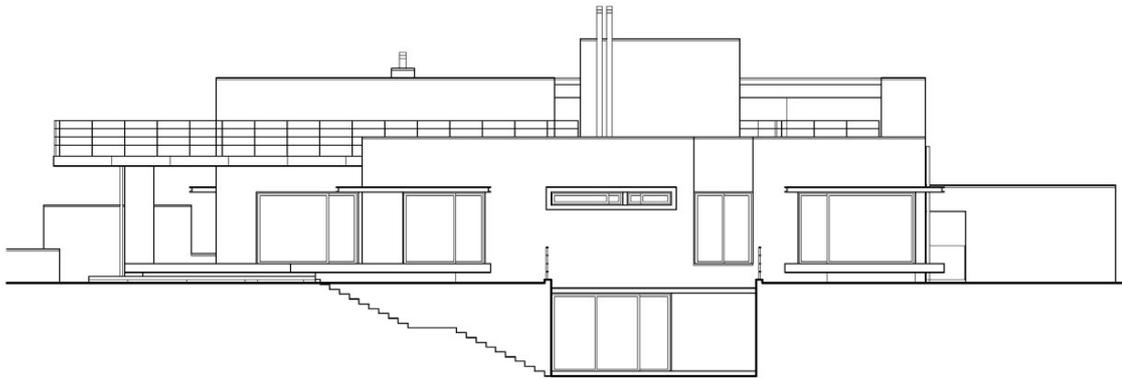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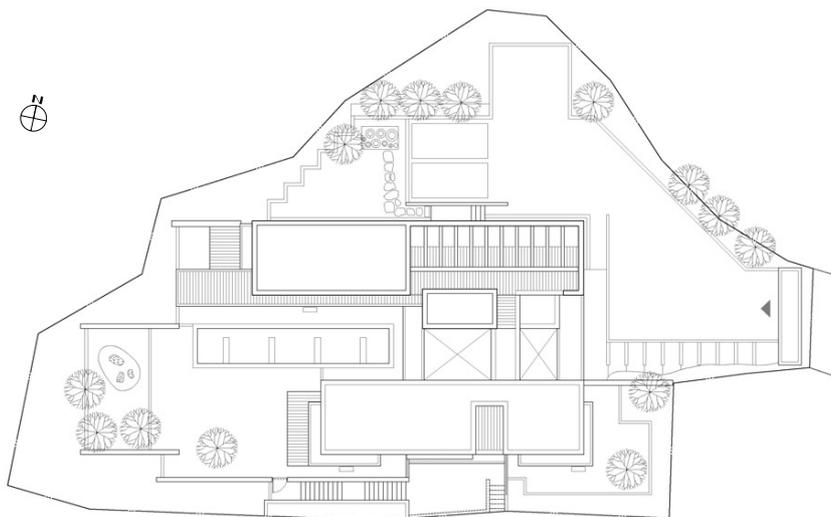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01_ 다목적실  | 10_ 서재    |
| 02_ 선근기둥  | 11_ 방     |
| 03_ 창고    | 12_ 다용도실  |
| 04_ 보일러실  | 13_ 주방/식당 |
| 05_ PIT   | 14_ 거실    |
| 06_ 기름탱크실 | 15_ 툃마루   |
| 07_ 현관    | 16_ 중청    |
| 08_ 안방    | 17_ 데크    |
| 09_ 드레스룸  | 18_ 연못    |



남측면도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347-4-14

지역지구 보전녹지지역

대지면적 1,137.00㎡

건축면적 208.88㎡

연면적 250.74㎡

건폐율 18.37%

용적률 17.3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층, 지상 1층

주차대수 2대

설계담당 박기원, 김경배, 배좌섭, 이장우,  
김석철, 권오재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촬영: 임영수)